

## NETWORK

IT 기술과 모빌리티의 연결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  
모든 교통망이 그물처럼 촘촘히 엮인 '스마트시티'를 꿈꾸며  
전 세계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S  
MAGAZINE

VOL.81

2024. NOV + DEC

교통안전, 빅데이터와  
시로 혁신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욱 스마트한 변화

# 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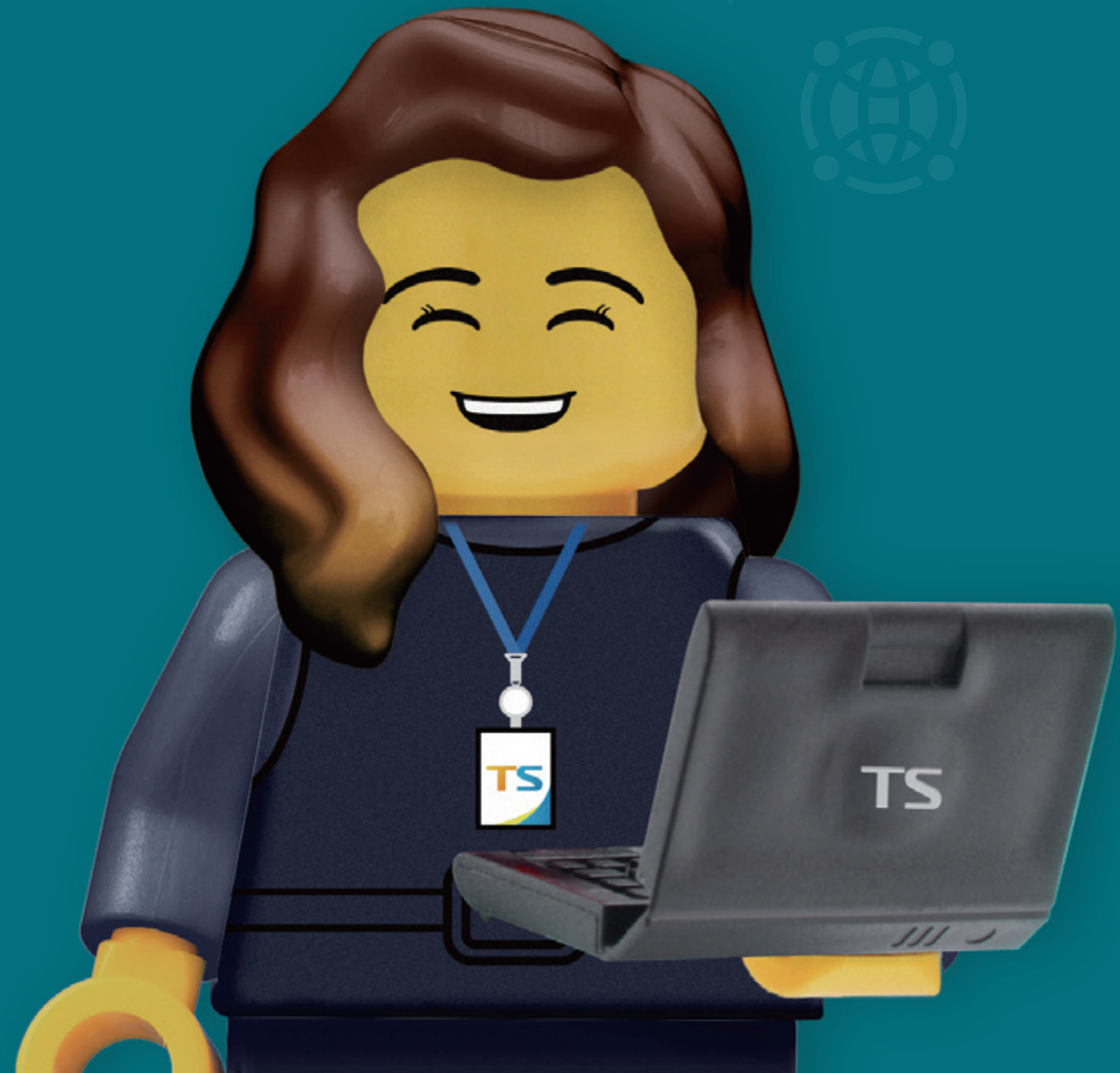
MAGAZINE  
2024. NOV + 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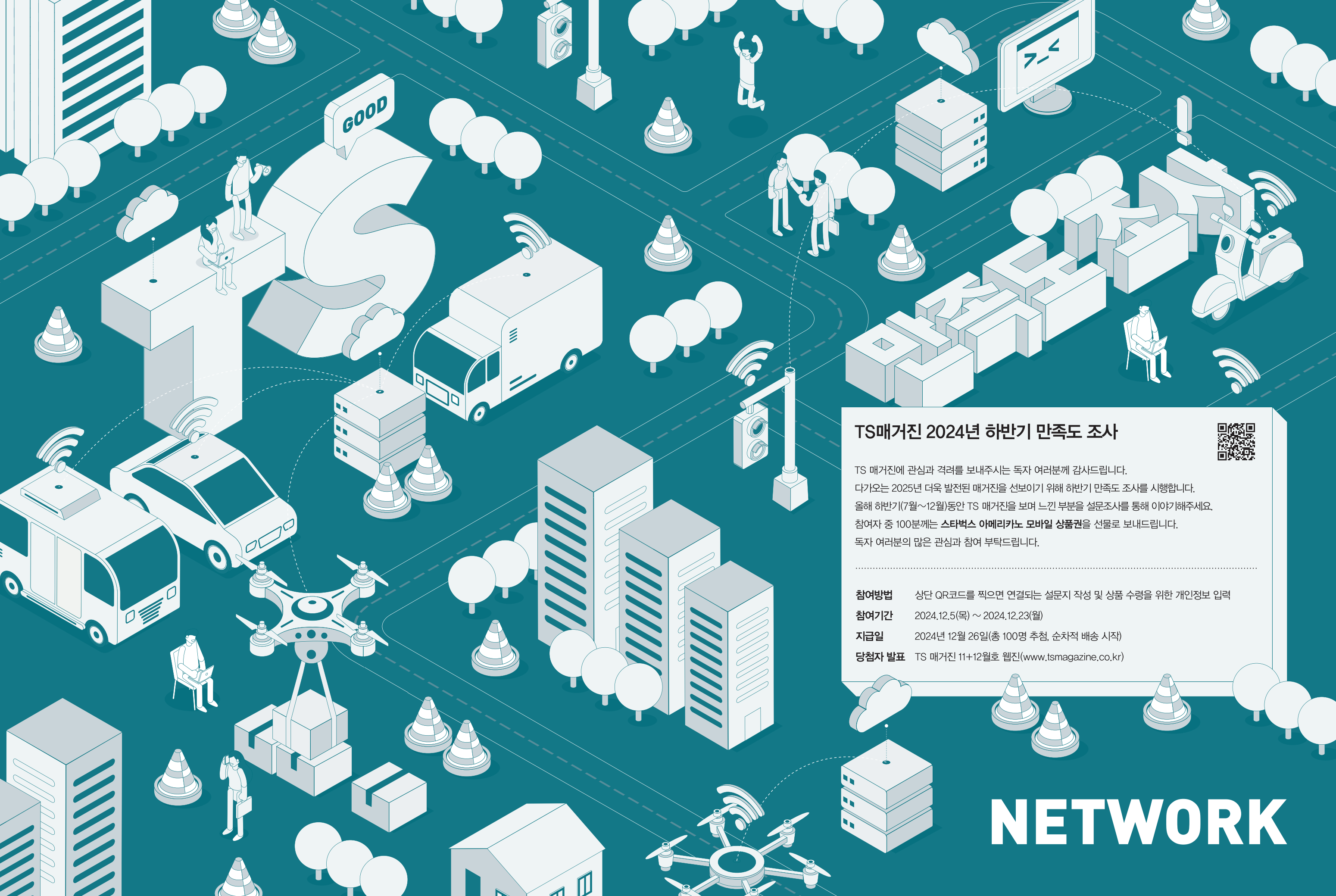
VOL  
81

NETWORK



ISSN 3022-5213  
9 773022 521006





## TS매거진 2024년 하반기 만족도 조사



TS 매거진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더욱 발전된 매거진을 선보이기 위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시행합니다.

올해 하반기(7월~12월)동안 TS 매거진을 보며 느낀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 이야기해주세요.

참여자 중 100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상단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되는 설문지 작성 및 상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참여기간** 2024.12.5(목) ~ 2024.12.23(월)

**지급일** 2024년 12월 26일(총 100명 추첨, 순차적 배송 시작)

**당첨자 발표** TS 매거진 11+12월호 웹진([www.tsmagazine.co.kr](http://www.tsmagazine.co.kr))

# NETWORK

**발행인** 정용식(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발행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발행일** 2024년 12월 10일 제81호 격월간  
**홈페이지** <https://www.kotsa.or.kr>

**기획·디자인·제작** 칼리그램 (www.calligram.com)  
**인쇄** 좋은사람들  
**구독·취소 요청** 02,335,7636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의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하라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TS매거진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 강령 및 잡지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는 레고 그룹의 승인 또는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 정기간행물입니다.



## MESSAGE

06

### TS 포커스

TS 공공데이터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지는 세상/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아이가 아닌, 아내를 위한 육아휴직

16

### TS 뉴스

김천드론자격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 인증 외

18

### TS 인터뷰

교통안전, 빅데이터와 시로 혁신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욱 스마트한 변화

디지털혁신처 주신혜 책임연구원



22

### TS Team인터뷰

베이킹 동호회  
'빵야빵야'

26

### TS Team인터뷰, 후일담

한국교통안전공단 동호회 회원들의  
인터뷰 후기

## TOGETHER

28

### 스페셜 테마\_이야기

교통·물류도 앞서가는  
K-스마트시티 이야기

34

### 스페셜 테마\_사람

물류와 인류, 지식과 연결로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

비온드엑스 김철민, 엄지용, 신승윤



38

### 슬기로운 교통생활

손이 시려, 콩! 차도 시려, 빵!  
겨울철 내 차 관리 팁

40

### TS 메이트

올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의 음식은?  
2024년 휴게소 음식 FESTA



42

### T식백과

"저···, 실은 저도 차량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하기

44

### GLOBAL 이슈

아시아, 북미, 유럽의  
빨라지는 스마트시티 시계

## INSIGHT

52

### 여행을 떠나요

맛과 멋, 감성이 충만한  
청춘과 낭만의 도시  
춘천

58

### 트렌드 트래킹

피자처럼 조각조각 추구미를 모았더니  
'내'가 되었다.  
추구미

62

### 심, 표지판

건조하고 나른한 겨울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려면

64

### TS툰

겨울철 도로살얼음  
어떻게 대비할까?

## TALK & SMART

66

### TS상식마당

다음 중 겨울철 도로살얼음 대비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68

### 독자와의 수다

내가 사는 지역이  
스마트시티가 된다면?

70

### TS 퀴즈

TS 매거진과 함께 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자동차 정비이력부터 운행기록까지

# TS 공공데이터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지는 세상

글. 편집실 사진 및 자료제공.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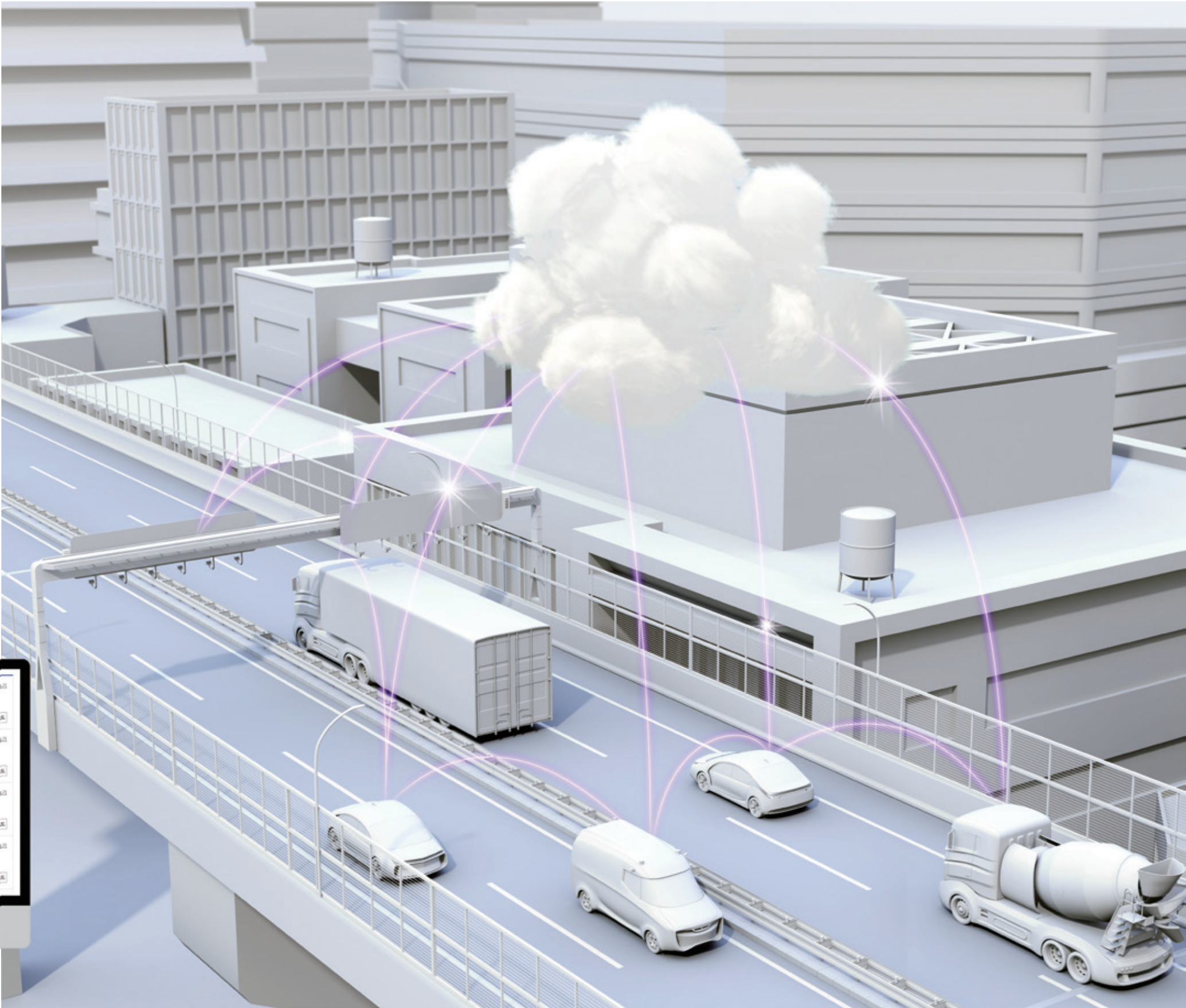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뜻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데이터포털, TS 데이터 개방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20년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49개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1. 공공데이터포털 화면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2



시시각각 변화하는 차량 운행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 및 모바일 APP 등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파악·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분석시스템인 eTas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데이터도 공단이 개방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 중 일부다.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현재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등은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공단은 eTas 시스템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급정지, 급진로 변경 등 난폭운전 습관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이 디지털 운행기록계로부터 수집중인 '운행 기록 데이터'는 교통행정기관, 공단 및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안전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활용하는 전제하에 제공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운행기록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사업용 차량 사고 예방 분석에 활용 가능하며, 데이터 기반 교통안전정책 수립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공단에서 개발한 보급형 모바일 운행기록장치
3. 보급형 모바일 운행기록장치 사용 예시
4.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행계적 분석 화면

5



TS 데이터 개방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쉽고 안전하게 열람 및 분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술연구 및 통계분석,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창업 등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의 신규등록부터 말소까지 자동차 생애 전주기(Life Cycle) 데이터와 자동차 정비이력 상세를 비롯한 자동차종합정보 배치성자료 및 첨부형API 서비스 항목 등 공단의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분석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안심구역에 위치한 TS 데이터 개방센터 서울연계센터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자동차365 홈페이지(car365.go.kr) 내 자동차종합정보개방(데이터 프리존 예약)을 통해 이용신청(예약)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승인 요청을 하면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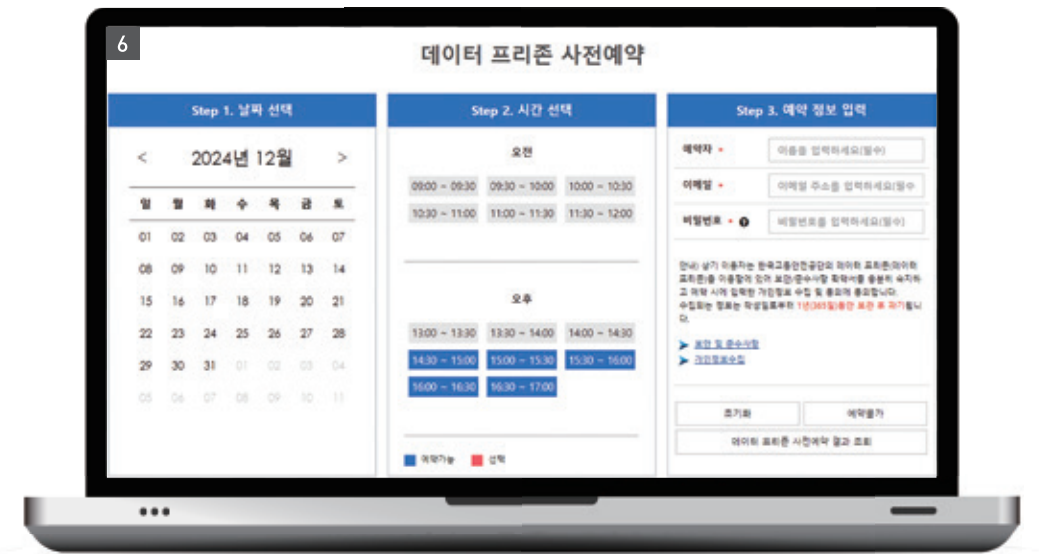
5. 데이터 안심구역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6. 데이터프리존 예약화면  
©자동차365



데이터 프리존 예약  
바로가기

6





# 안전한 전기차 배터리,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글. 편집실 사진. 문영민 외 다수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이 올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승용차 및 이륜차 배터리 업계 수요조사 등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월 15일 광주광역시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서 열충격, 연소시험 등 총 12개 시험 항목에 대해 안전성능시험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공단은 성능시험 대행기관으로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

를 조기에 안착시켜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S**

1. 업무협약 체결식
2. 구동축전지 진동시험 참관
3. 구동축전지 연소시험







## 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남성 육아휴직 체험수기 공모 최우수작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위해 지난 11월 공단 내 육아휴직 경험하고 복직한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했다. 1차와 2차에 걸친 평가 과정을 거쳐 엄선된 8개의 우수 체험수기 중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K-City연구처 이상현 연구교수의 수기를 소개한다.

## 아이가 아닌, 아내를 위한 육아휴직

글·사진. K-City연구처 이상현(연구교수 5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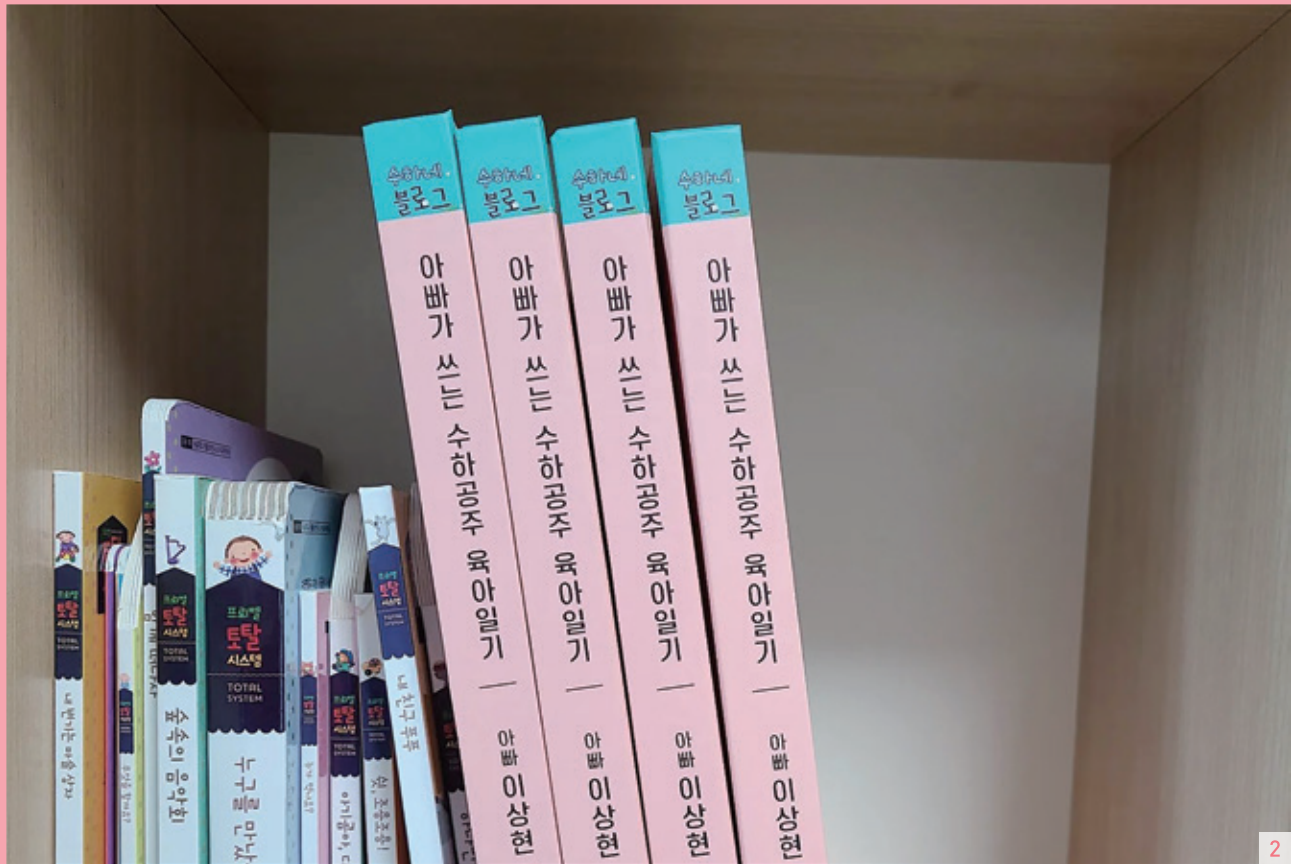
나는 아이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대부분 아빠의 육아휴직 이유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성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 위해서다. 나도 마찬가지로 2023년 3월 딸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느껴보는 생명의 탄생과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마음속으로 다가왔고 아이와 교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에 육아휴직을 생각했다.

하지만 나에게 딸아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이의 엄마인 나의 아내이다. 나의 아내는 몸이 약한 편이다. 손목, 발목, 허리는 매일 저리고 자주 चेहरे하며 위경련도 가끔 일어난다. 걸어 다니는 병원이다. 이런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면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다. 그럴만도 하다. 4~5kg 남짓한 아이의 기저귀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주고, 앉았다 섰다, 들었다 놔둘 때 몇 십 번 반복한다. 매일 저녁 아이를 씻기고, 젖을 먹인다고 손목과 무릎, 허리가 남아나질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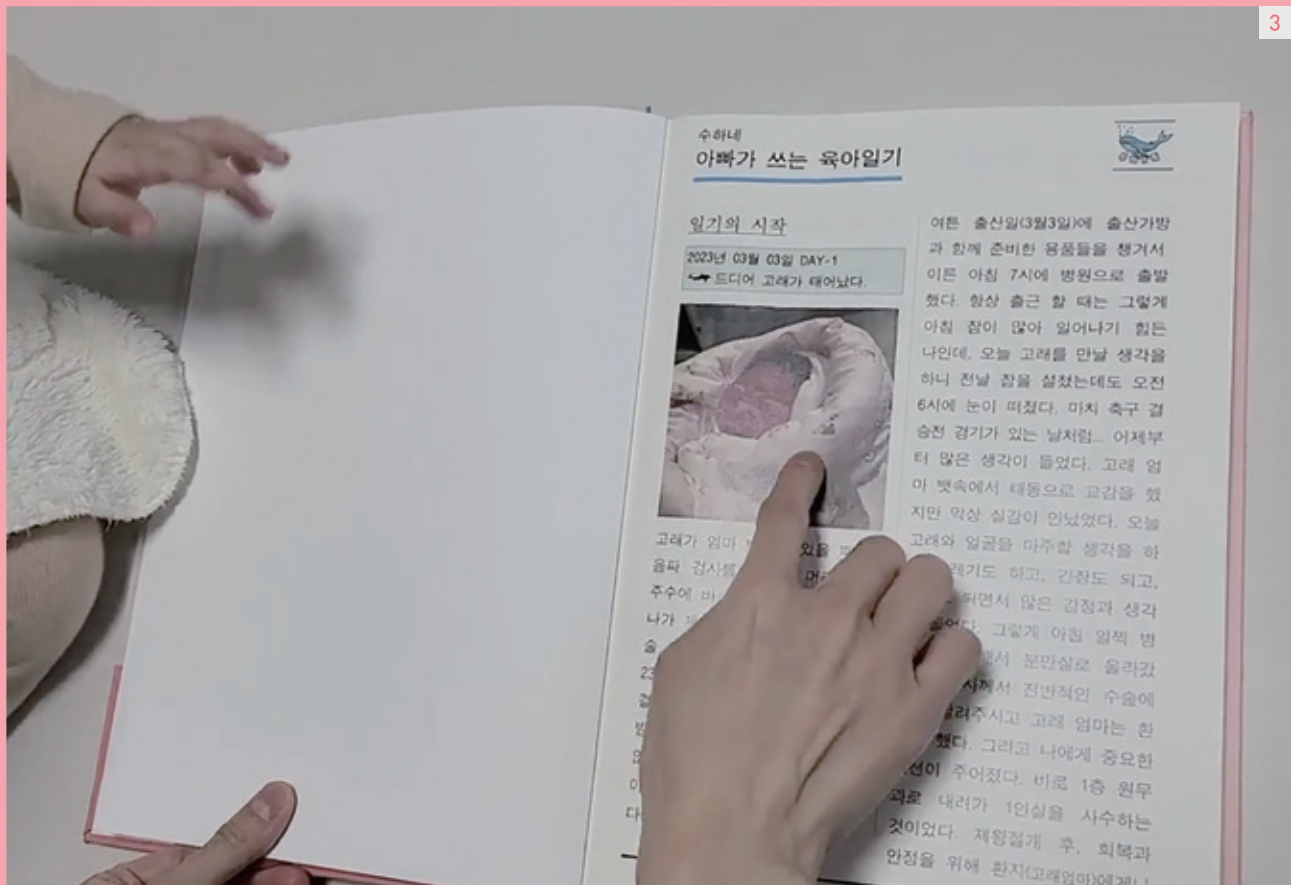
건강한 남성인 내가 혼자 해도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든 일인데, 이제 막 출산을 마치고 모든 관절이 벌어져 있는 아내가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것이 신생아 육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생아는 3시간 마다 수유를 해야하고 대소변을 가려줘야 하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아내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있었다. 체력이 필요한 육아는 건강하고 팔팔한 체력을 가진 내가 자신할 수 있었고, 하루하루 지쳐가는 아내를 보다 못해 아이가 태어나고 2개월 뒤에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 첫돌 기념으로  
제작한 육아일기





2



3

2. 육아일기 10권 정도를 소량 제작하여 돌잔치 때 양가 가족들과 작은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3. 첫들 전까지 아내와 함께 육아하면서 중요한 순간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일기로 작성했다.
4. 육아휴직 덕분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육아일기로 기록하고 남길 수 있었다.

올해 5월 8일 육아휴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믿을 거라곤 하루에도 몇백 번 아기를 들었다 뱉다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뿐인데, 부모가 처음이라 아이가 왜 우는지, 왜 잠을 안 자는지, 분유를 왜 안 먹는지, 하나하나 모르는 것투성이에 모든 것이 어렵고 막막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든든한 동반자이자 아내, 아이 엄마가 함께 있으니 의지가 되었고, 잘해낼 수 있을 거란 안정감과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함께 부모로서 성장하고 우리 가족의 추억과 사랑으로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컸다.

요즘 나를 포함한 젊은 부모들을 보면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큰 것 같다. 옛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요즘 <금쪽같은 내새끼>와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과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불안과 육아는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 혼자라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하니 막연한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걱정이 설렘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아내와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보다 기대감과 설렘으로 육아를 했다.

짧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느낀 점은 육아를 혼자 한다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쳤겠지만,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한 덕분에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온전히 주면서, 더욱 예쁘게 잘 키워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육아를 하니 몸과 마음에도 여유가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감사하며 육아를 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이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 엄마와 함께 육아일기를 쓰자고 마음을 먹었고, 첫들 전까지 중요한 순간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짧게나마 일기로 작성했다. 그리고 짙막한 기록들은 하루, 이틀이 모여 책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었다. 결국 아이의 첫들에 이 일기를 묶어 책으로 만들 수 있었고, 10권 정도를 출판(?)하여 돌잔치 때 양가 가족들과 출판 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만약 내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아내가 혼자서 육아를 했더라면 성치 않은 몸도 더욱 나빠졌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육아휴직을 통해 함께 육아를 하며 육아에 여유를 느꼈기 때문에, 매 순간에 감사하며 아이를 온전히 사랑해줄 수 있었고, 그 순간들을 기록해 책으로도 남길 수 있었다. 육아일기는 지금도 종종 꺼내 읽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면 이 책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며 키워왔는지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TS**



4



## NO.1

## 김천드론자격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 인증



올해 4월 개소한 김천드론자격센터(이하 센터)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Free, 이하 BF 인증)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BF 인증’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는지 공인가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제도이다.

센터는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구축을 고려했으며, 특히 어린이부터 장애인, 고령자까지 모두가 편리하게 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은 물론, 휠체어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었던 외부 실기시험장까지 경

사로와 발판을 모두 설치했다.

더불어 센터는 장애물 없는 시설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을 초청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 지역보육원 아동 및 지역 청소년 초청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마을주민 초청 드론 비행 시연회 ▲ 전국 대학생 UAM행사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편, 김천드론자격센터는 비수도권 최초의 상시 드론 자격시험장으로써 드론 자격 취득을 원

하는 중·남부권 사람들의 수험 편의성을 높이고, 최첨단 드론 인프라를 바탕으로 드론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BF인증을 초석으로, 김천드론자격센터가 모두를 위한 드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여 미래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가 불편이나 차별 없이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 드론 교육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O.2

## TS, 친환경 자동차 특화 검사 진로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월 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시민연합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특화 검사 진로 시연회’를 개최했다. 친환경자동차 검사 진로 구축은 자동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단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국민의 안전한 친환경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공단은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한 기존 검사 진로 리모델링을 통해 배터리의 성능(셀간 전압 및 온도, SOC, 급속 충전 횟수, SOH 등) 검사, 전기 안전성(고전압 부품 절연 및 셀간 전압차, 배터리 온도 등) 검사, 주행 안전에 필요한 레이더 센서 및 주행 경고음 성능 검사 시설을 구축했다.

아울러, 자동차 하체 스캔 장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자동차 하부의 배터리 등 장치의 안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배터리의 직접적인 발열 상태(배터리 및 구동계, 발열 주요 부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하는 등 첨단 검사 인프라를 마련했다.



공단은 서울 성산검사소를 시작으로, 금년 내 구로검사소(서울)와 해운대검사소(부산)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부터 전기차 관련 특화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전기차 및 첨단차 검사수요에 맞춰 점진적 확대 예정으로, 더욱 더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본격적으로 전기차 및 첨단차의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이 자동차의 안전을 신뢰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검사 인프라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O.3

## TS—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월 7일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와 함께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시연교육’을 실시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뒤에 따르는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2차 사고 사망자는 141명으로 연평균 28명 발생하였으며, 치사율은 55.5%로 일반사고보다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시연교육을 통해 비상 상황시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실시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한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속도로 2차 사고 통계 및 위험성 ▲고속도로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잘못된 행동요령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행동요령 등에 대해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 참여도를 높였다.

한 교육생은 “이번 시연교육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고속도로 2차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면서,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운전보조장치 등에 과도하

게 의존하여 전방주시를 잘 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전방 주시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단과 한국도로공사는 교육 인프라 공유, 교육자료 공동개발, 공동 교육 추진,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 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24. 4. 11.)을 체결한 후 꾸준히 상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위한 국내 최초·최고의 시설로, 2009년 3월부터 체험교육을 시작하여 2024년 10월까지 약 356,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곳 센터는 대지면적 302,802㎡

(9만 1천평), 건축면적 7,859㎡(2,381평) 규모로 본관동 외 5개동(△삼백관 △택시라운지 △숙소동 △편의동 △정비동)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2개 체험교육코스과 체험교육용 자동차 167대(△교육용 자동차 144대 △교보재 자동차 23대)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교통안전 관련 기관과 꾸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안전, 빅데이터와 AI로 혁신하다!

##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욱 스마트한 변화

글. 한울 사진. 문영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면 교통안전 분야도 보다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단독으로 사용될 때보다 다양한 데이터 간의 융합을 통해 훨씬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 빅데이터의 융합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개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I는 교통안전의 예방, 관리,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 및 AI 기술은 궁극적으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디지털혁신처 주신혜 책임연구원을 만났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혁신처에서 근무하는 주신혜입니다. 저는 2019년 입사해 교통빅데이터센터와 모빌리티처를 거쳐 올해 2월부터 디지털혁신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MaaS 실증,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활성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었고, 현재는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 등 빅데이터·AI 기반 교통안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디지털혁신처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디지털혁신처는 '빅데이터·AI 기반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 체감형 데이터 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교통안전과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교통 및 모빌리티 정보 활용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서비스 창출 지원, 대국민 서비스 K-패스 사업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고 다발 구

간을 사후 관리했지만, 이제는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에서 이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데이터 품질 관리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 채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맡고 계신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단에서는 다양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저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빅데이터·AI 기반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사업용 차량 및 운수 종사자 관련 정보를 융합하여, 공단, 운수회사,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COSA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고, 도로 개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Q. 교통 및 안전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접목된 사례가 궁금합니다.**

'스마트시티'가 바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대표 사례입니다. 스마트시티의 한 예로서 CCTV 영상을 활용해 돌발상황을 감지하고 도시에서 수집 가능한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융합하여 위험정보나 안전과 관련한 신규 정보를 생성하여 운전자 및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상황 발생시 알림 메시지로 사고나 돌발상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K-Safer' 사업도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발생 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도로의 위험지점을 파악하고 지점별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사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교통안전과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입니다. 도로운영·관리자의 편의성을 위한 위험도로 진단 및 원인분석, 맞춤형 개선대책 제시까지 지원 가능한 AI기반 솔루션으로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챗GPT를 교통안전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통안전에 위한 보다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공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로드뷰 이미지를 챗GPT에 제공하면, 챗GPT는 교차로의 건물, 도로, 인도 비율과 차량의 교통량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과속 사고가 빈번한 구간에서는 보통 방지턱 설치를 제안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방지턱보다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교차로 개선 방법을 넘어, 현장 상황에 맞는 보다 안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교통안전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Q. 업무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서 큰 만족을 느낍니다. 또한, 제 연구나 분석 결과가 서비스화 되었을 때, '이 아이디어 정말 좋다', '이 서비스 꼭 사용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서비스가 실제로 잘  
운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때, 제 일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얻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서비스가 실제로 잘 운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때, 제 일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제 일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Q. 업무를 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시도가 많다 보니, '이게 과연 될까' 하며 신뢰도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다 보니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도 이해는 되지만, 이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위험 구간을 예측하고 개선했다 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예측과 대처가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에 신경 써야 하는데, 특히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협조 받아 분석할 때 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나 업무 철칙이 궁금합니다.**

설득력 있는 말과 표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책을 많이 읽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뿐만 아니라 책과 논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위가 있어 논문 심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최신 기술을 접하고, 그 기술을 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Q. 계획과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이 실제로 안전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TS





## 정성 가득한 손끝으로 완성한 케이크 그 위에 펼쳐진 메리 크리스마스

글. 한울 사진. 홍영기

베이킹 동호회 '빵아빵야' 회원들이 쿠킹 아카데미에 속속 모였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부쉬 드 노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정성과 개성으로 만들어가는 케이크에는 만드는 이의 행복이 담겼다. 그리고 케이크 위에 산타와 눈사람이 하나씩 올려지며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빵아빵야가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달콤한 순간을 함께했다.



## 퇴근 후에도 빛나는 에너지! 빵으로 쌓는 동료애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적이다. 고운 밀가루와 따뜻한 물이 만나 반죽이 되고, 그것이 오븐 속에서 황금빛으로 변할 때의 짜릿한 순간. 그래서 베이킹은 그저 요리가 아니라, 창조적인 즐거움과 성취감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길이 점차 완벽한 빵을 만들어내는 변화는 그 여정을 더욱 값지게 만든다.

어스름한 어둠이 내린 저녁, 베이킹 동호회 '빵아빵야' 회원들이 쿠킹 아카데미에 모였다. 퇴근 후라 피곤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곤은커녕 얼굴에 화색이 돌며 활력이 넘쳐 보였다. 오늘의 베이킹 수업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감지되었다.

빵아빵야는 올해 4월 창단된 신생 동호회다. 현재 4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매번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베이킹을 배우고 있다. 빵아빵야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외협력실 박민지 과장이 동호회에 대해 소개했다.

“주변에 베이킹을 취미로 하는 동료들이 몇 명 있었고, 베이킹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취미 생활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호회를 결성했고, 점차 입소문을 타며 회원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만든 빵을 동료들과 나누며  
소통할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빵아빵야는 분기별로 서너 번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전문 강사로부터 베이킹 수업을 듣고, 오븐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노 오븐 베이킹’을 회원들끼리 이벤트성으로 가끔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만든 빵을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빵을 통해 더 친밀한 동료애를 형성할 수 있어요! (웃음)”

회원들이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며 수업을 준비했다. 테이블에는 수업을 위한 재료들이 준비돼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다시 한번 기대와 설렘이 묻어났다.

##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케이크를 만들다!

오늘 회원들이 만들 빵은 ‘부쉬 드 노엘’ 케이크다. ‘부쉬 드 노엘’은 프랑스어로 ‘장작’을 의미하는 ‘부쉬(Buche)’와 ‘성탄절’을 뜻하는 ‘노엘(Noel)’이 결합된 단어로, ‘크리스마스의 장작’이라는 뜻이다. 오래전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장작을 태우며 액운을 떨쳐내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벽난로를 사용하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1879년 프랑스의 한 제과점에서 장작 모양의 케이크가 등장했다. ‘부쉬 드 노엘’은 크리스마스 전통을 이어가며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빠지지 않는 인기 있는 디저트로 사랑받고 있다.

구워져 나온 빵의 향기를 맡을 때  
완성된 케이크가 너무 예쁠 때  
모든 노력과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가장 먼저 다크 초콜릿으로 가나슈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 가나슈는 케이크를 덮는 용도로 사용된다. 작업이 시작되자 회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재정회계처 박완수 과장이 정성스럽게 초콜릿을 저었다. 그의 손길을 따라 진한 초콜릿 향이 번졌다.

“퇴근 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베이킹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빵을 만들어보면서 베이킹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만든 빵을 동료들과 나누며 소통할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 과정은 강사가 미리 시범을 보였다. 준비된 초코 시트 위에 생크림을 고르게 얹고, 스파츨러로 평평하게 펴주었다. 그 후, 생크림을 듬뿍 떠서 시트 한쪽에 올려놓고, 초코 시트 아래쪽에 가이드 라인을 그린 뒤 손으로 꺾 눌러 접어주었다. 그런 다음, 김밥을 말 듯 조심스럽게 시트를 말아 나갔다. 롤케이크가 완성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회원들이 “와~!” 하며 탄성을 내뿜었다.

회원들이 이내 작업을 시작했다. 예상보다 초코 시트가 잘 말리지 않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롤케이크가 완성된 후에는 가나슈를 듬뿍 발라 스파츨러로 고르게 펴주었고, 마지막으로 포크나 나이프를 이용해 표면에 나뭇결 모양으로 장식했다. 회원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더해지자 롤케이크는 마치 장작처럼 변신을 시작했다. 모양도, 색깔도 그럴싸하게 완성되었다.

## 맛있고 멋진 케이크로 느낀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

이제 드디어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장식컷 만든 롤케이크의 장식식이 시작되었다. 산타, 트리, 선물상자, 눈사람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잔뜩 풍기는 각양각색의 장식들이 하나둘씩 롤케이크 위에 올려지며 크리스마스의 매력을 더해갔다. 마치 회원들의 손끝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뿌려 눈처럼 꾸며주니 겨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와! 예쁘대!”, “진짜 통나무 같애!” 회원들은 동료들의 케이크를 감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먼저 작업을 끝낸 대외협력실 서성미 과장은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라며 미소 지었다.

“부쉬 드 노엘 덕분에 연말 분위기를 확실히 만끽하네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즐거운 경험을 했어요. 내일 사무실에 가서 동료들과 나눠 먹을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동료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격관리처 김가연 선임연구원의 눈빛에 감동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만든 케이크도 크리스마스 정취를 물씬 풍겼다. “베이킹을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오븐에서 빵이 구워져 나올 때 풍기는 향기를 맡을 때, 너무 예쁜 케이크나 빵이 완성돼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노력과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웃음)”

빵아빵야는 동호회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베이킹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베이킹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박민지 과장은 “혼자서 배울 때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즐겁게 배울 수 있으니, 빵아빵야의 문을 많이 두드려주세요!”라며 인사를 전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한 오늘 수업은 빵아빵야 회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쌓여 빵도, 보람도, 성취감도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 **TS**







TS Team터뷰

후일담

정리. 편집실

2024년 한 해 동안 TS 매거진과 함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동호회 회원들의 인터뷰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 1+2월호 축구 동호회 골을 때리는 그녀들

“TS 매거진이라는 매체로 공단 축구회와 골때녀를 알리게 되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동호회가 널리 홍보 되어 골때녀 신규 회원도 더 늘어났고, 축구회와 골때녀 기존 회원들에게도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3+4월호 자전거 동호회 TS RIDERS

“TS 매거진 인터뷰 사실을 조금 일찍 알았다면 미리 살도 좀 빼서 더 멋지게 사진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아요. 다음에도 인터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상품권으로 회원들과 간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 5+6월호 댄스 동호회 드라이빙비트

“TS 매거진을 통해 우리 드라이빙비트의 화려한 데뷔 무대를 알리게 되어 기분이 정말 좋고 홍보도 많이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다양한 분들이 우리 동호회에 많이 와 주셔서 더 화려하고 멋지게 무대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드비 파이팅!!”

#### 7+8월호 배드민턴 동호회 TS배드민턴회

“우리 동호회의 활기찬 모습을 TS 매거진을 통해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덕분에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TS배드민턴회와 함께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배드민턴의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9+10월호 캠핑 동호회 캠핑간부

“보내주신 상품권 덕분에 캠핑간부 회원들과 함께 도란도란 맛있게 간식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TS 매거진에 우리 동호회가 다시 실리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내실 있게 동호회 활동을 이끌겠습니다!”





## 교통·물류도 앞서가는 K-스마트시티 이야기

글. 최윤주 참고.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외 다수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1990년대 미국과 유럽권에서 태동한 도시 모델이다. 초기에는 점점 더 심화되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도시에 접목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다.

2010년대 이후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시 공간에 접목해 교통 혼잡, 기후위기, 고령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혁신 모델로서의 의미가 더 강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스마트시티를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꾸준히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제4차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다. 교통, 환경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공모를 통한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 발굴 및 실증도 진행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매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글로벌 마케팅·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6개 해외 도시에서 '한국 스마트 서비스 실증 사업'도 추진해 지원하고 있다. K-스마트시티 기술은 IT(정보기술)와 ICT(정보통신기술) 등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을 플랫폼으로 묶어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 새로운 K-스마트시티 계획 세우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2000년대 초반 화성 동탄과 파주 운정, 대전 도안, 인천 송도 등 신도시 중심의 유비쿼터스 도시(U-CITY)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2008년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관련 법률을 제정했으며 현재는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1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거점·강소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후 거점·강소형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147개 지자체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등 약 400여 개 스마트 솔루션이 구축됐다.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과 세종은 스마트시티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이어질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 수성구, 서울 관악구, 서울 송파구, 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023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한편 2021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 기간(2년)이 도래해 인증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구시, 대전시, 부천시, 서울시, 안양시(대도시)와 서울 강남구,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성동구(중소도시) 9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공청회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14:00 / 장소: 국토연구원 강당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공청회  
©국토연구원

## 세종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부산과 함께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 스마트시티'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교통시스템으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영국표준협회(BS)로부터 스마트시티 구현 능력을 인정받아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 37106) 레벨3(성숙)을 획득한데 이어, 2020년에는 세계적 수준인 레벨4(선도)로 도약하는 성과를 이뤘다.



세종 스마트시티 관련 앱  
©세종시정소식지

현재 세종시 이음다리에서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스팟(SPOT)'이 주·야간 자율순찰을 진행하여 실시간 영상을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송출하고 있다. 송출된 영상은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된다. 2022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폰 앱 '세종엔' 앱은 86종의 도시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버스정보, 안심이 서비스, 초미세먼지정보, 시설예약, 놀이터 혼잡도 파악은 물론 여권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인 '오원링크(Olink)'는 버스, 공공자전거, 차량공유, 스마트주차,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성남시, 드론 활용 스마트시티 앞장서

2023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된 경기도 성남시는 공원 드론 배송 구축, 드론을 활용한 열 지도와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등 드론 관련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성남시는 드론 등을 활용해 지역과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혁신성을 높이 평가 받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시상식인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4'에서 한국 최초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앞서 국토교통부 선정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자로서 지난해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에 참가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5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왕립위원회(RCU) 대표단이 성남시를 방문하여 사우디 알울라 지역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WSCE 2024  
성남시 부스의 모습  
©성남시



성남시청 공원에서  
열린 드론 시연회  
©성남시



### 성동구,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횡단보도로 편의·안전 확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연장이 결정된 서울시 성동구의 '성동형 스마트 시티·스마트 횡단보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에 선정됐다. 첨단 기술을 접목해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와 민·관 협업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시티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을 보호하는 시설로, 버스승차대 기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교통정보와 공공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 등 18종의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스마트 조명, 차량번호 자동 인식,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등 8종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2024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에 선정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의 모습  
©성동구

### WSCE 2024에서 앞서가는 교통·물류 기술 선보인 현대차그룹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까지 8회를 맞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이하 WSCE) 2024가 '더 나은 삶이 여기'를 주제로 지난 9월 일산 컨텍스에서 열렸다. 공공기관, 지자체, 사기업 등 수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부스를 선보인 올해는 현대자동차그룹 등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스마트 기술들이 돋보였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WSCE에서 약 273평 규모의 전시관을 △교통 △물류, 로보틱스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세 구역으로 나눠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교통 존에는 개인형 모빌리티 'DICE', 차세대 UAM 기체 'S-A2', 다인승 공공 모빌리티 시스템 'SPACE-Mobility', 수요응답형(DRT) 모빌리티 플랫폼 '서큘' 등이 전시됐다. 물류·로보틱스 존에는 자동 물류 분류 시스템이 탑재된 '시티 팻', 소비자 스타일에 맞게 모듈을 결합해 차량을 사무실, 고급 리무진, 캠핑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술인 '이지 스왑', 주차 로봇 등을 전시하여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K-스마트시티 기술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었다.



WSCE 2024  
현대자동차그룹  
부스 조감도  
©현대자동차그룹

## WE DRIVE biz

위드라이브비즈: 기업용 모빌리티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이 관리하는  
교통 데이터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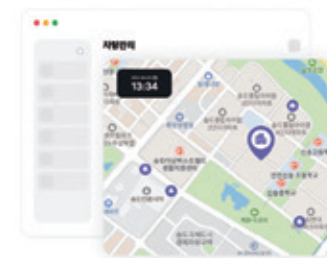
운행이력  
운전습관  
탄소배출



온라인  
출장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운행일지  
자동 생성



운행일지, 출장관리, 자산관리, ESG성과분석  
기업의 교통 데이터를 한번에 관리하세요!

(주) 위드라이브

www.wedrive.kr | 070-4149-0165





## 물류와 인류, 지식과 연결로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

글. 신나라

사진. 최대한, 홍영기

비온드엑스

김철민, 엄지용 공동대표

신승윤 기자

우리 손에 들린 휴대폰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이 이동하는 거리를 합치면 지구에서 38만 6천 킬로미터 밖의 달을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다고 한다. 향긋한 커피 한 잔에 필요한 재료를 역시 지구를 몇 바퀴나 돌 만한 기나긴 여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테이블 위로 올라온다. 언뜻 보면 비효율적으로도 느껴지는 이 과정이 인간사에 경이를 주었다.

사람과 물건이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났아 가는 모든 과정은 물류다. 어딘가로 이동할 때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더욱 복잡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물류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온 부가가치의 역사와도 다르지 않다. 100년 전의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대문 앞에서 받아볼 수 있으리라 상상했을까? 이 다음 100년의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얼마나 믿기지 않는 가치 속에 살게 될까? 물류와 인간을 연결하는 지식 플랫폼, '비온드엑스'의 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비온드엑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TS매거진>으로 비온드엑스를 처음 만날 독자들을 위해, 세 분과 비온드엑스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김철민 대표, 이하 '김') 안녕하세요, 비온드엑스의 대표 김철민입니다. 비온드엑스는 급변하는 물류산업의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와 산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지식을 전달하는 플랫폼인데요, 저는 창업자이자 대표로서 팀이 지식과 콘텐츠를 통해 물류의 본질을 좀 더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엄지용 대표, 이하 '엄') 김철민 대표가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파트너십 비즈니스를 전개한다면 저는 비온드엑스가 가진 대표적인 미디어 채널인 '커넥터스', '커넥트 라운지' 등 콘텐츠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승윤 기자, 이하 '신') 안녕하세요, 비온드엑스의 물류/커머스 전문 미디어 '커넥터스' 신승윤 기자입니다. 이 분야의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는 어느새 8년차를 맞이했네요.

세 분이 물류와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비온드엑스로 만나게 되었나요?

(엄) 저는 물류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물류 비즈니스를 공부했는데요, 역설적으로 '미디어'가 물류가 추구하는 연결의 가치를 완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디어를 통해 물류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면 색다른 비즈니스 잠재력이 만들어질 거라고 봤어요. 참, 제 첫 직장의 편집장이 김철민 대표이고, 당시 채용했던 인턴기자가 지금도 함께 일하는 신승윤 기자입니다. 이 인연이 10년의 세월을 거슬러가는군요. (웃음)

(신) 일전에도 물류 전문 매거진에서 기자로 일했는데요, 지금은 거물(?)이 된 물류 및 커머스 업계 창업가들의 초창기 활동들을 취재하며 이 시장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거와 이동의 편리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플랫폼인  
스마트시티에서 물류는  
'데이터의 혈관'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_김철민 대표

(김)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은 쓸모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 물류를 접했을 때 단순히 제품이 옮겨지는 과정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세계를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매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정이 세 사람을 비온드엑스로 결속시켰어요.

요즘 물류 카테고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슈나, 트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 지금 물류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DX(Digital Transformation)부터 AX(AI Transformation), 지속 가능성입니다. 위험율이 높아 인력고용이 힘든 물류 현장에서의 로봇, 휴머노이드 도입 사례는 더 이상 실험실의 풍경이 아니게 됐죠. 또 고객들도 단순한 효율성보다는 환경까지 고려한 물류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물류업계가 전 세계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죠.

(엄) 사람을 뽑기 힘든 물류업계의 고민에서 이어지는 이슈 가운데에는 '자동화'도 있습니다. 아직 기술 변곡점\*이 오지는 않았지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동안 물류 현장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의 역량보다는 다양한 무인 설비들을 다채롭게 조합하는 엔지니어링, 그 설비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시스템 역량이 중요해질 거예요.

\*기술 변곡점: 사람을 쓰는 비용보다 자동화를 쓰는 비용이 저렴해지는 시점





복잡한 연결망은 물류의  
난이도를 높이지만, 동시에  
물류가 활약할 여지를  
넓혀 주기도 하죠. \_임자용 대표

(신)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해외 직구 관련 플랫폼은 물론 물류나 금융 서비스,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도 관심과 투자가 커지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물류란 ‘필요한 양의 물품을 원하는 장소에 보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하죠. 대표님과 에디터님에게 물류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 물류란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도 복잡한 물류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도달하죠. 저는 “작은 변화는 작은 변화에 머무르지만, 연결된 변화는 혁신이 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 모든 물건과 가치를 연결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일, 물류가 있어야 모든 가치가 완성되는 거죠.

(신) 물류의 본질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결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품과 자원의 물리적 이동은 물론 콘텐츠, 금융 등의 무형의 가치가 어떻게 이동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지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물류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제로 이뤄내는 전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플랫폼 하면 대안도시이자, 도시 플랫폼인 ‘스마트시티’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나 빅데이터,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카 등 ICT 기술이 체화된 도시에서 물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김) 스마트시티의 근간은 주거와 이동의 편의를 바탕으로 라이프스

타일을 만드는 플랫폼인데, 이때 스마트시티의 물류는 ‘데이터의 혈관’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트럭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반영해 최적의 경로로 물품을 배송한다면, 물류는 사람과 도시의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신) 실제로 최근 한 대형 물류기업 사장님으로부터 “자사 택배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와 주거지역, 고객의 집 문 앞까지 택배 상자를 자동으로 보내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 완전 무인화된 도시에서는 IT를 바탕으로 한 최적화 기술이 돋보일 것입니다.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자동화된 도시를 구축한다면 기술에 최적화된 도시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수많은 기업이 연결되어 만드는 물류의 특성 상,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물류가 맡게 될 겁니다.

**이번 호 TS매거진의 주제는 〈Network〉입니다. 네트워크라는 단어에 물류만큼 잘 어울리는 업종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비온드엑스의 여러분들은 네트워크(Network)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네트워크란 고독한 점들이 모여 빛을 내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되었을 때 가치가 생긴다’는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류 역시 다양한 연결의 집합이라는 면에서 각 지역과 나라,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 네트워크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연결망’이 되겠죠. 복잡한 연결망은 물류의 난이도를 높이지만, 동시에 물류가 활약할 여지를 넓혀 주기도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이자, 물류 최적화에 꼭 필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대표님과 기자님이 보기에, 물류 업계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와 비교해 업계의 성격이라든지, 외부에서의 인식 등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임) 예전에는 물류라고 하면 흔히 육로, 항로, 해로를 통한 대형 물류, 이른바 전통 물류를 떠올리셨을 텐데, 지금은 이 전통 물류 현장에서도 물류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느끼는 듯해요. 요즘처럼 이커머스가 급부상하는 때 물류 현장에도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신) 몇 년 사이 한국 소비자들이 받는 물류 서비스의 수준이나 기대감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소비자 중심의 물류가 되며 투자도 많아졌고요. 최근에는 비용과 효율 문제로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애초에 물류의 본질적인 가치는 ‘효율’과 ‘생산성 향상’이잖아요. 위

기 상황에서 각 기업이 자신들만의 가치사슬 안에서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다 보면 새로운 발견이 있을 거라 봅니다.

**현업자와 업계 외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연이나, 피드백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김) 일전에 한 독자분께 “물류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연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류가 물리적 이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의 이동이라는 걸 전하는 것이 저희의 큰 목표 중 하나라, 이런 피드백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죠.

(신) ‘현업 종사자들이 사랑하는 매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산업의 본질을 고민하는 미디어로서 당사자들의 인정을 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임) 제 전 직장에서 만났던 스타트업 대표님을 비온드엑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재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거의 10년 전인데, 그토록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죠. 오랫동안 함께해주는 독자 여러분들이 그 어떤 피드백보다 저의 큰 힘이 됩니다.

**TS매거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사는 물론, 버스터미널 등에도 배포되는 기관지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님들은 물류라는 걸 조금은 멀게 느끼시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물류를 한층 친숙하게 바라보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대표님과 에디터님의 인터뷰를 읽으실 여러 독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 물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임스 제이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만, 로마는 물류로 유지된다”고 했듯, 물류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세상 모든 이들이 연결된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이번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들도 물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임) 저희는 물류를 포함한 가치사슬 전반을 다루는 비즈니스 미디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든 저희의 콘텐츠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도 독자의 과반수가 물류업 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편하게 저희 콘텐츠를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의 독자가 되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 사실 물류업에서, 특히 화물운송이나 여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교통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련한 내용들도 기회가 되면 다루어 볼 테니, 그때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 거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웃음) **TS**

커넥터스 페이지  
바로가기







## 손이 시려, 꺾! 차도 시려, 뺑! 겨울철 내 차 관리 팁

글. 신나라   참고. 한국정책방송원 외 다수

하루가 다르게 주위의 나무가 앙상해지는 것을 보니  
온몸이 움츠러드는 추위가 눈앞으로 다가왔음이 느껴진다.  
겨울을 앞둔 내 차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사계절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이리저리 누비는 자동차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번덕스러운 계절을 견뎌야 하기도 한다. 사람도 계절마다 날씨에 맞추어 옷을 바꾸어 입고, 제철 음식으로 건강을 다스리듯이 자동차에게도 제철에 맞는 건강 관리 방법이 있다.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실내외의 온도차가 심해지는 등 여름과는 정반대로 주행 환경이 크게 변화하니,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 알아두면 좋을 차량 관리 팁을 소개한다.



### 방전되기 전에, 배터리 체크!

추운 날씨에는 히터와 열선 시트 사용량이 늘어나고, 저온에서 시동을 걸 때 소모되는 전력량이 늘어나 배터리 부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배터리가 방전되기 쉽다. 영하의 날씨에 장시간 주차해둔 차량은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난처한 상황을 만들곤 하니, 배터리 컨디션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주어야 한다.



### 쇼크업소버(완충기) 체크!

울퉁불퉁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 운전자의 주행피로도를 낮추어주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쇼크업소버(완충기, shock absorber)이다. 추우면 사람의 몸이 움츠러들 듯 쌀쌀한 날씨에는 금속이나 고무 등 차체를 구성하는 부품들도 미세하게 수축하기도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고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쉬운데, 고무 소재의 부품이 사용되는 쇼크업소버에도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보자. 쇼크업소버는 각 바퀴에 부착되어 있으니, 타이어 가까운 부분을 양손으로 힘껏 누른 뒤 손을 떼어 차의 흔들림이 두세 번 안에 멈추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시간이 지나도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소음이 심하다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 냉각수가 얼지 않게, 부동액 체크!

자동차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는 영하 20도까지는 잘 얼지 않지만, 혹한이 지속될 경우 빙점을 더욱 낮추어주는 것이 좋다. 냉각수가 얼지 않게 도와주는 부동액은 보통 물과 부동액을 5:5의 비율로 섞지만, 한겨울에는 부동액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것이 좋다.



###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도 체크!

날씨가 추워지면 타이어 내 공기압도 떨어진다. 공기압이 떨어지면 타이어의 제동 성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길이 미끄러워지기 쉬운 겨울에는 공기압을 조금 더 넉넉하게 높여두는 것이 안전하다. 도로 결빙이 잦은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할 일이 많다면 도로살얼음\*을 대비해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겨울용 타이어는 눈이나 얼음 등 수분을 배출하기 쉽게 디자인 되어 있고, 낮은 온도에 타이어가 굳어버리거나, 수축하지 않도록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 훨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 Q.   날씨가 추워지니 전조등에 결로가 생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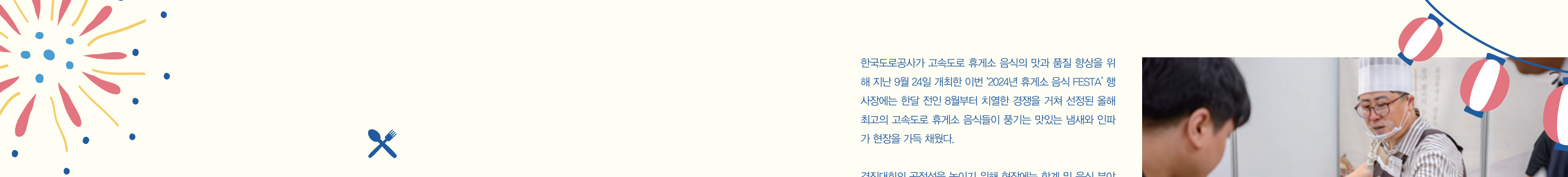
안개가 자주 끼고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에는 전조등(헤드램프)의 중요도도 부쩍 높아진다. 차량 내외부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겨울철에는 램프 내에 물기가 맺히거나 김이 서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램프에는 통기 구멍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기나 김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도 결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해 수리를 받도록 하자.

\*도로살얼음 : 눈비가 녹았다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막을 가리키며, 검은 아스팔트 색이 얼음에 그대로 비쳐 붙여진 이름, 블랙아이스라고도 부른다.

장시간 히터를 틀 채 주행할 경우 차량 내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졸음이 몰려오기 쉽다. <TS 매거진> 77호 '힘, 표지판'에서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팁을 소개하고 있으니, 겨울철 장거리 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읽어두자.







# 올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의 음식은? 2024년 휴게소 음식 FESTA

글. 최윤주 사진. 홍영기 자료제공. 한국도로공사



맑고 푸른 하늘 덕에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졌던 지난 9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반영된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못지 않게 아주 치열하고 화려한 음식 경연이 펼쳐졌다. 올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의 음식을 가리는 '2024년 휴게소 음식 FESTA' 그 현장을 들여다본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맛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이번 '2024년 휴게소 음식 FESTA' 행사에는 한달 전인 8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된 올해 최고의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들이 풍기는 맛있는 냄새와 인파가 현장을 가득 채웠다.

경진대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는 학계 및 음식 분야 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 및 한국도로공사 내부 임직원들을 비롯, 김천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2024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의 맛을 찾는 심사에 임했다.



## 백종원이 반한 그 돈까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과 본선, 국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2024 휴게소 BEST 음식 '명품 맛집' 11선과 'ex-food' 11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유명 맛집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처음 시행된 '명품 맛집'은 현재 전국 158개 휴게소에 유치되어 휴게소 이용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명품 맛집' 부문 대상을 차지한 '치즈 시내소'는 1980년 왜관 미군부대 후문에서 시작하여 지역주민에게 인정 받은 칠곡군 대표 경양식 전문점 '한미식당'의 대표메뉴를 칠곡(하행)휴게소에 유치한 것으로, 과거 SBS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 극찬을 받았던 바 있어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스트리아 슈니첼을 재해석한 한미식당 '치즈 시내소' ©SBS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올해 휴게소 최고의 음식은?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의 음식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ex-food'는 휴게소 소재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각 지역 휴게소 특색에 맞게 메뉴를 개발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ex-food 부문 대상은 삼진강 특산물 청매실과 채첩의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삼진강(부산)휴게소의 '웰빙 청매실 채첩비빔밥'이 차지했다.



삼진강 특산물을 활용한 '웰빙 청매실 채첩비빔밥'  
©삼진강(부산)휴게소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휴게소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국 유명 맛집 유치 및 대표 메뉴 개발 등 휴게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식백과

## “저..., 실은 저도 차량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하기

글. 신나라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외 다수    사진제공. CAKE, 씽씽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이동장치들은 이제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든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수칙까지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법.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가리킨다. 퍼스널 모빌리티로도 불리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운송수단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들이 포함된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유형 이동수단이 바로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데, 차체 사이즈가 작지만 속력이 빨라 전체

차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고율이 높은 차종이기도 하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더구나 이들 개인형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에서 탑승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용 시 안전수칙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예시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 전동킥보드 탑승 시 주의해야할 점



#### 주행은 적정 장소, 적정 속도로

전동킥보드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충격 흡수량이 적는데, 이 때문에 도로의 미세한 단차에도 전도되기 쉽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는 운행하지 않도록 하되,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진행방향인 우측에서 통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이용해야 한다.



####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 후 탑승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려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아직 만 16세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만 기다려 면허를 취득한 뒤 탑승하자.



#### 내 몸에 맞게, 보호구는 필수!

핸들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게 자신의 신체 크기나 체형에 맞는 제품에 탑승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동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손목 보호대나 무릎·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탑승은 혼자서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인이다. 1명 이상의 승차 정원을 초과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승차 정원은 반드시 지켜서 이용하도록 하자.



#### 어두울 땐 빛을 반짝!

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야간 식별이 더욱 쉽지 않다. 보행자와 주변 운전자를 위해 야간에는 등화장치, 발광장치 등을 키고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쓸쓸한 Tip

#### Q.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 탑승할 수 있다고?

전기자전거에는 면허가 필요한 종류와, 면허 없이 탑승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작동 방식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본의 아니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



스로틀식

페달이 없는 전기자전거는 스로틀식 전기자전거일 확률이 높다. 스로틀을 잡아당겨 가속하는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이동장치(PM)에 해당되어 면허가 있어야 탑승할 수 있다.



PAS식

주변의 공유 전기자전거의 형태를 생각하면 간단하다. 페달을 밟아 모터를 구동하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로,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면허 필요 여부와 관계 없이, 스로틀식 전기자전거도, PAS식 전기자전거도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이 의무이니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바쁜 출퇴근길이나 등굣길, 나를 목적지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옮겨주는 편리한 이동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들은 친숙한 생김새라 가볍게 인식하기 쉽지만, 이들 역시 엄연한 차량\*이다. 주위에 흔히 보이는 전동킥보드를 차라고 인식하는 순간 경각심도 조금 더 생기게 되니, 개인형이동장치를 탑승할 때는 '나 역시 운전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용하도록 하자. TS

\*차량 :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아시아, 북미, 유럽의 빨라지는 스마트시티 시계

글. 양원모 참고. Sustainability Magazine 외 다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핵심 전략으로 최근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 시스템에 ICT 기술을 융복합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2022년 6,558억 달러(약 904조 원)에서 2030년 6조 9,650억 달러(약 9,60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UN 해비타트의 2022년 세계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인구 56.2%는 도시에 살고 있다. 이 수치는 2050년 68.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유럽, 북미권 주요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사례와 동향을 살펴봤다.

GLOBAL



##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스마트시티 정책

중국 정부는 2010년 이후 지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정책을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3차 5개년 계획을 공포하면서 '지혜성시(智慧城市·스마트 시티의 중국식 표현) 정책'을 처음 발표했다. 민간 차원의 스마트시티 진척도 활발하다. 알리바바는 항저우에서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를 진행, AI를 활용한 도시 운영을 구현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 환경, 방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있다. '후지사와 지속가능 스마트 타운'이 대표적이다. 전기 공장 부지를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전환한 사례로,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사이어티 5.0을 구현하고 있다. '소사이어티 5.0'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초스마트 사회를 뜻한다.

베트남은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과 협력해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스마트시티 법제도 가이드라인 개발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네이션' 정책을 수립했다. 총리실 산하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주거, 건강, 교통 등 핵심 영역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싱패스', 도시 전체를 3D로 구현한 '버추얼 싱가포르', 자율 주행 셔틀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후지사와 지속가능 스마트 타운의 모습 ©Panasonic



중국 거대 기술기업 텐센트가 중국 선전에 건설할 미래도시 '넷 시티' 조감도 ©ChinaTalk





미국 뉴욕 '링크 NYC' 프로젝트 ©LinkNYC

## 미국, 캐나다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그램

미국도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하이오주(州) 콜럼버스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에 최종 선정돼 교통 시스템 개선,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IT 업체 시스코와 함께 '만물 인터넷(IoE) 프로젝트'로 도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뉴욕은 무료 와이파이(Wi-Fi)망을 제공하는 '링크 NYC'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만물 인터넷은 사물 인터넷이 진화해 만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미래 인터넷 환경이다.

캐나다는 2017년 정부 이니셔티브인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시작, 225개가 넘는 지자체가 도시 계획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9년 열린 1라운드에는 △공유 모빌리티 혁신 △식품 바우처 관리 프로그램 '토마토(Tomato)' △식품 허브 설립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네트워킹을 강화한 퀘벡주 몬트리올시가 대상을 차지했다.

WE  
S  
S  
I

## 유럽도 빨라지는 스마트시티 시계

유럽 연합(EU)과 영국도 스마트시티 추진이 한창이다. 영국 런던은 '스마트 런던 플랜'과 '스마트 런던 투게더'를 통해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교통, 에너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을 도입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탄소 중립 도시'를 목표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건물, 첨단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구현했다.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해결했으며, 스마트 쓰레기 수거함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런 혁신은 코펜하겐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0개가 넘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CT 기업 클러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덴마크 코펜하겐  
©oliverfoerstner

스터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 '22@ 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이며 교통 흐름 개선, 스마트 주차 등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도시와 기업들이 솔루션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행사장 ©Move21





## 사고 시엔 언제나 세이프카와 함께!



**홈화면**

**차량 OBDII 연동  
안전모드 ON**

차량 내 OBDII 기기 설치 및  
연동 시 더욱 상세 모니터링이 가능!



**사고 감지 화면**

**사고 감지 30초  
후 자동으로 신고**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알림을 통해 해당 상황을 전달!



**사고 신고 완료 화면**

**사고 신고 후  
신고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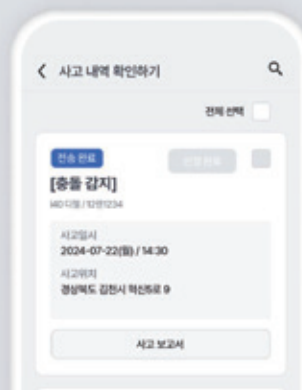
사고가 감지된 지도 등  
신고된 정보 확인!



**사고 내역 화면**

**사고 내역은  
언제든지 관리**

이전 사고 기록들까지  
세이프카에서 관리



**교통사고 보고서 화면**

**교통사고 보고서  
로 사고정보 확인**

사고 시 상세한 정보는  
사고내역 확인하기에서



세이프카는 자동차 사고를 감지해 **사고 전 5초에서  
사고 후 1초까지의 데이터**(속도, RPM, 가속페달, 제동상태, 엔진온도,  
배터리 상태, 날씨 등)가 포함된 사고 보고서를 생성해  
유관기관 및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ET IT ON  
Google Play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전기차 배터리 All-in-One Solution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전기차의  
마지막 모습까지 친환경이기를 바랍니다”

포엔은 한 번 쓰고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들을 배터리 업스케일링 기술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제조 제품으로  
생산하여 자원재순환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  
재제조



전기차 배터리 셀  
품질 분석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평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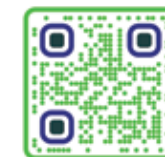
### 신속하고 혁신적인기술로 시장 선도

포엔은 배터리팩 재제조, 재사용, 잔존가치 평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맞춤형 배터리팩 설계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포엔은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객센터 refurbish@poen.co.kr / 070.7797.8432



www.poen.co.kr





앞서가는 교통안전 인증체계 구축으로  
미래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대응합니다



## 맛과 멋, 감성이 충만한 청춘과 낭만의 도시 춘천

글. 최윤주 사진 및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외 다수

옛사랑을 그리워 하는 노래 ‘춘천 가는 기차’와  
‘소양강 처녀’의 감성이 흐르는 도시

경춘선은 복선화 되고 ITX-청춘 열차가 운행되는 지금도 여전히  
춘천하면 떠오르는 두 단어는 바로 청춘 그리고 낭만이 아닐까.

유난히 산과 강이 많아 사계절 내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호반의 도시

청춘과 낭만의 도시 춘천에서  
맛과 멋, 감성을 가득 채워보자.

# CHUNCHEON



## 춘천 시내권

오래된 골목과 노포들의 낭만과 맛으로 가득한 춘천 원도심부터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소양강, 의암호까지! 춘천 시내권 여행으로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보는 것은 어떨까.



### A 춘천대교

2022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서 김태리와 남주혁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장면이 촬영된 장소. 다리 위 케이블을 연결한 원형 탑이 인상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의 춘천의 다양한 모습을 12가지 이미지로 구현한 화려한 분수쇼도 볼 수 있다. 다채로운 조명이 빛나는 야경 명소이자 시원하게 달리기 좋은 드라이브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춘천 시내를 연결하는 대교로 2019년 올해의 토목구조상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588

### B 춘천낭만시장

조선시대 춘천 읍내장을 계승한 전통시장으로 오랫동안 춘천중앙시장으로 불리다가 시장이 현대화 되면서 이름을 바꾸었다. 춘천의 대표 변화가인 명동과 연결되며 시장 통로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육림고개 등과도 인접해 함께 둘러보기 좋다.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느껴지는 곳.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명동길 34

### 춘천낭만시장 추천 먹거리



#### 튀김만두 골목

별미당, 팬더하우스, 포또아, 슈퍼스넥까지 40년 이상 춘천 튀김만두의 명맥을 이어온 역사와 전통의 분식점 타운. 가게마다 맛과 노하우가 다른 고소한 '튀김만두'와 '쫄볶이'의 환상 조합을 즐겨보자.



#### 낭만국시

정성스럽게 반죽하고 숙성하여 매일 아침 직접 칼로 썰어 뽑아낸 칼국수로 이름난 곳. 남해안 멸치를 사용해 국물이 구수 짭짤 개운한 '옛날 손칼국수'와 천연의 단맛이 느껴지는 새콤 달콤 매콤 '갈비빔국수'가 대표 메뉴.



#### 카페 고인물

부드러움과 폭신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수플레 팬케이크'와 직접 발효한 반죽으로 매일 아침 신선하게 구워내는 '스콘'이 유명한 낭만시장의 레트로 감성 카페.



춘천낭만시장 입구 ©춘천시

### C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춘천시 삼천동에서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을 연결하는 3.61km의 국내 최장 케이블카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며 활과 부메랑을 형상화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바닥이 통유리로 된 크리스털 기내에서 아름다운 의암호의 생생한 모습을 눈에 담아보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케이블카 너머 산, 호수, 도시가 흐르듯 펼쳐집니다. 전망대에는 통유리로 된 카페가 있어 춘천 시내 모습을 한눈에 담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와 연결된 산책로와 스카이워크 전망대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TSG원본부 안전관리처 이윤형 부교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뒤로는 마적산과 수리봉이 호위하듯 우뚝 서 있고, 앞으로는 소양강과 북한산이 감싸고 흘러내리는 수려한 지역. 춘천시 신북읍은 기원전 고대에 ‘맥국’이라는 나라가 자리했던 아주 오랜 도읍지이기도 하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신북읍으로 떠나보자.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사계식물원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 D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으로 다양한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기후변화취약식물 등을 만날 수 있어 식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2023년에는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소철꽃’이 꽃망울을 터트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계절마다 다채로운 꽃이 피고 지며 겨울에도 따뜻한 유리온실에서 푸른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화목원 내 산림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목원길 24



### E 춘천인형극제 앵글 겨울축제

1989년 9월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한 아시아 최대 인형극 축제가 매년 춘천에서 열린다는 사실! 대규모 인형 퍼레이드부터 국내외 수준 높은 인형극 및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이 진행된 여름 축제의 열기를 겨울에도 느껴보자.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2024 앵글 겨울 축제’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공연된 인형극 중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을 춘천인형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3017



춘천인형극장과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춘천인형극제

### F 맥국수체험박물관

춘천 향토 음식 맥국수를 테마로 한 체험형 박물관으로 맥국수 뽑는 틀을 본떠 만든 외관부터 방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다. 맥국수와 메밀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장(1층)과 직접 맥국수를 만들어 맛볼 수 있는 체험장(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메밀 반죽부터 시작해서 틀을 눌러 면을 뽑아 양념장과 각종 채소를 넣고 비벼 먹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방문할 가치는 충분하다.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4

“춘천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맥국수를 직접 만들고 시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새콤달콤하고 갓 뽑은 메밀의 순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맥국수 만들기 체험 후에는 박물관에서 맥국수의 유래부터 메밀의 효능 등 다양한 맥국수 이야기를 들려다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하고 체험도 즐기고 일석이조!”



TS강원본부 안전관리처 이윤형 부교수



춘천맥국수체험박물관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피자처럼 조각조각 추구미를 모았더니  
‘내’가 되었다



## 추구미

글. 신나라 참고. 대학내일20대연구소 외 다수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삶에 귀감 삼도록 위인전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고난과 역경을 의연하게 이겨내고 온 세계에 이름을 날린 위인의 모습은  
너무나 근사하지만, ‘추구하기에는’ 딱 까마득하다. 좀 따라볼 만한 귀감은 없을까?  
문득 ‘추구미’라는 단어가 신경 쓰인다.



혹시 인터넷에서 ‘추구미’란 단어를 본 적이 있는가. 이제는 잡지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 같은 매체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단어다. 단어의 탄생은 수년 전으로 제법 오래 되었지만 대중적으로 사용된 지는 그리 오래지 않았다. 추구미는 ‘추구하다’와 ‘미(美)’를 결합한 말로,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뜻한다. 비슷한 의미의 ‘롤 모델’이나 ‘워너비’라는 말이 있지만 추구미는 훨씬 무게가 가볍고, 넓은 범위에서 사용된다.

추구미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될 당시에는 자신을 향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좋아하는 아이돌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무대 위에 선 아이돌의 복장이나 메이크업,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아이돌이 내 취향에 딱 맞는 콘셉트를 구현했을 때 팬들은 그를 가리켜 ‘추구미’라고 했다. 그런데 2023년도 경부터 이 단어가 메이크업이나 패션 등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더니, 어느새 아이돌 팬덤을 넘어 일반인들이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메이크업, 패션 등에 추구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  
추구미는 파묘 김고은인데 도달가능미는 범죄도시4 장이수인 현실  
©트렌드어워드, X 캡처

2.  
추구미 트렌드에 맞춰 많은 브랜드들은 본인 취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DIY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스위트스팟



## 비 오는 날 먹는 짬뽕도 추구미

단순히 롤 모델이나, 워너비 등의 단어와 무게감만 달랐다면 비슷한 용법의 단어가 이토록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추구미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기존에 비슷한 용례로 사용되던 롤 모델과 워너비가 사람에게 국한되어 사용되었다면, 추구미는 매우 다양한 대상에게 사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크게는 외모나 스타일링 방식, 가치관부터 책상 위에 올려둘 소품을 고르는 안목이나 사진을 찍는 그만의 노하우에도 추구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내 장교 시절 동기는 딸이랑 그렇게 친하더라고, 유튜브도 찍는다면 추구미 느껴지더라”, “비 오고 쌀쌀한 날, 우거지 넣고 푹 끓여낸 뼈해장국은 그야말로 내 추구미다” 따위의 용법도 가능하다.

## 아침에는 졸음형, 낮에는 외향형, 저녁에는 내향형. 그리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추구미도 수수께끼 속 인간의 모습처럼 다양하다.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을 하루로 좁혀보자. 나의 하루도 아침과 저녁, 혹은 출근이나 등교, 잠들기 전 등으로 그 시기를 촘촘하게 쪼갤 수 있다. 추구미의 강점이자 특징은 필요한 순간마다 그 종류를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유연성에 있다. 수십 명의 롤 모델이 있다고 하면 어째 이상하게 들리지만, 추구미는 수십 개쯤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회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싸 주임님’이지만, 퇴근한 하면 집 안에서 넷플릭스와 가정용 게임기를 벗 삼는 ‘집돌이·집순이’라는 반전 매력의 캐릭터를 추구미로 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각 추구미가 서로 상반된 성향을 가지고 있든, 아무런 일관성이 없든 그것이야말로 추구미의 정체성이다. 추구미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바꾸어 설정할 수 있다.

## 나도 저런 ‘느낌으로’ 살고 싶어

추구미의 핵심은 그저 그의 멋진 라이프스타일을 고스란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추어 내 방식대로 그의 라이프스타일을 재현하는 데 있다. 목표지향적 성격이 강한 장래희망과는 달리 추구미는 보다 과정지향적이고 정성적이다. 가령 내 삶의 목표로서 설정된 것이 장래희망이라면, 그 장래희망으로 가기 위한 수단까지 삶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추구미인 셈이다.

여가시간에는 아끼는 스포츠웨어를 입고,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마주 오는 강아지에게 눈웃음으로 인사하는 삶을 추구미로 선택했다면 의류나 신발의 브랜드는 차치하고 ‘그런 느낌’으로 살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추구미에 ‘내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는 마음 편한 전제가 추가된다.

그러다 보니 추구미는 종종 짧게 소비되며 일시적 실험으로 끝나기도 한다. 막상 직접 해보니 그다지 나와 맞지 않는 느낌이거나, 생각했던 것만큼 근사하지 않았다면 다른 추구미로 교체할 수 있다.

## 육각형 인간, 그리고 추구미

한때는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곤 했다.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거나, 평가할 수 있는 여섯 개의 축 그래프에서 각 기준 축이 모두 꼭지점까지 꽉 차면 정육각형이 된다. 평가 기준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외모나 집안, 성격, 직업, 학력 등이 자주 기준에 들곤 한다. 어떤 항목은 지난한 노력으로 꼭지점까지 달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항목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다다르기 어렵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몽땅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추구미는 육각형의 ‘롤 모델’을 여러 명 두고, 이들이 가진 멋진 모습을 분해해 따른다. 그래서 엄밀히는 그 누구도 롤 모델이 되지 않는다. 웹툰 속 캐릭터의 말씨나 행동이 추구미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치는 연예인이 대화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제스처를 추구미로 삼기도 한다.

사람이 어떤 한 부분만으로 존재할 수 없듯, 추구미 역시 원본이 없기에 두루뭉술한 이상과 나 사이의 간극은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메우면 된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근사한 이상도 날날이 쏘 개면 꽤 손에 잡힐 거리로 다가온다.

유명 스포츠 선수의 생활 습관,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자기 전 자기관리 방법, 공부 잘하는 친구가 사용하는 필기구와 복장 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추구미를 이리저리 짜 맞추어 만든 육각형은 훨씬 지향하기 편리하다. 삼각형 여섯 개의 꼭지를 맞붙여도 아무튼 육각형이 된다.

## 되고 싶은 나와 될 수 있는 나

한편 추구미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로 ‘도달가능미’가 있다. 단어의 생김새만으로도 대강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해당 추구미에서 내가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만큼을 말한다. 결국은 추구미에 다다르지 못한 만큼이 도달가능미라는 소리인데, 이처럼 추구미 아래에 도달가능미를 두는 것을 취향에 위계질서를 두는 행위 내지는 자기표현에도 계급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이상적으로 원하는 모습과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모습 간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필연적인 좌절감을 나타낸 단어라고도 한다.

그런데 앞서 추구미에는 원본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원본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달 지점이 없고, 자연스럽게 ‘도달하지 못했다’는 결과도 없어진다. 추구미에는 실패에 대한 충분한 완충공간이 마련되어있기에 자괴감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도달가능미의 좌절감은 그렇게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지 않는다. 이상은 이토록 멋지지만 우리의 현실이 다다를 수 있는 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 아는 만큼 웃는 것이다.

## 나를 발견하는 과정

유튜브에서 특정 테마에 맞는 곡을 모아둔 ‘플레이리스트’를 자주 듣는 사람이라면 이들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전교생 친구로 만드는 ENFP 분위기 플레이리스트’, ‘연남동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가게 오픈 준비하며 듣는 플레이리스트’, ‘호텔에서 일하는 기분으로 만들어주는 플레이리스트’... 각각의 플레이리스트 제목에는 누군가가 추구미에 몰입하기 쉽게 도와주는 상황이 상정되어있다.

추구미를 찾아가는 것은 타인의 개성을 단순히 모방하고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돌다 어쩔지 마음에 들어서 저장했던 사진, 흘린 듯이 만지작거리게 되는 식기, 이상하게 자꾸만 눈이 가던 연예인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지는 않은지 찾아보자. 그 공통점이 이를테면 나의 추구미다. 이렇듯 추구미를 찾다 보면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취향을 깨닫고, 보다 고유한 나만의 정체성을 비로소 알게 되기도 할 것이다.



‘뱀새가 황새 흉내 내려다 가랑이 다 찢어진다’는 서글픈 속담이 있지만, 팔막한 다리로도 황새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는 것만은 가능하다. 황새만 한 뱀새야 나오겠냐마는, 제 다리 길이에 맞는 품새로 걸어 다니는 황새의 모습을 추구미로 삼겠다는 게 어찌 문제겠나. 그것이 자신의 도달가능미라는 것을 아는 뱀새는 유쾌하다.

추구미는 이상을 외면하지 않는 미련과 현실을 뚜렷하게 이해하는 이성 사이의 훌륭한 균형점이다. ‘롤 모델’을 따르기도, ‘워너비’를 꿈꾸기도 조금 버겁다면 이상도, 현실도 내려놓을 수 없는 나를 위한 그럴싸한 대안으로 ‘추구미’를 하나둘씩 모아보자. TS



# 건조하고 나른한 겨울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려면

글. 편집실    참고. 대한안전교육협회 외 다수

오슬오슬 몸이 떨리는 추운 겨울철, 매서운 찬바람을 피하려 창문을 닫은 채 오랜 시간 히터를 틀고 운전하다보면 건조한 실내 공기에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몸은 나른하게 늘어지기 마련이죠. 이런 날씨에 운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졸음운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운전 시작 전 옷차림은 가볍게

주행 전 두꺼운 겉옷은 미리 벗고 출발하는 것이 좋아요. 지나치게 두꺼운 옷차림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은 물론, 운전 중 체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졸음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졸음 때문에 운전 도중 옷을 벗으려고 하면 더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운전을 시작하기 전 두꺼운 겨울옷은 미리 벗고 출발하세요.



## 히터 사용은 지혜롭게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히터 사용이 불가피하죠. 장시간 히터를 켜 상태로 창문을 닫고 있으면 이산화탄소에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까지 차 안에 가득 차 졸음 오기 딱 좋은 환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행 내내 히터를 계속 틀어놓기 보다는 잠시만 강하게 틀었다가 끄는 등 적절한 사용으로 차량 내부 온도를 20~23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 아무리 추워도 환기는 필수

찬바람 피한다고 창문을 굳게 닫은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면 자동차 내부 산소가 줄어들어 졸음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실내에 산소는 줄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면 졸음뿐만 아니라 불안한 호흡도 지속되어 운전자의 집중력까지 떨어집니다. 적어도 30분에 2~3분 정도는 차량 송풍기를 외기 순환모드로 바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주고 아무리 추워도 최소 2시간 주기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세요.



## 그래도 졸리다면 쉬어 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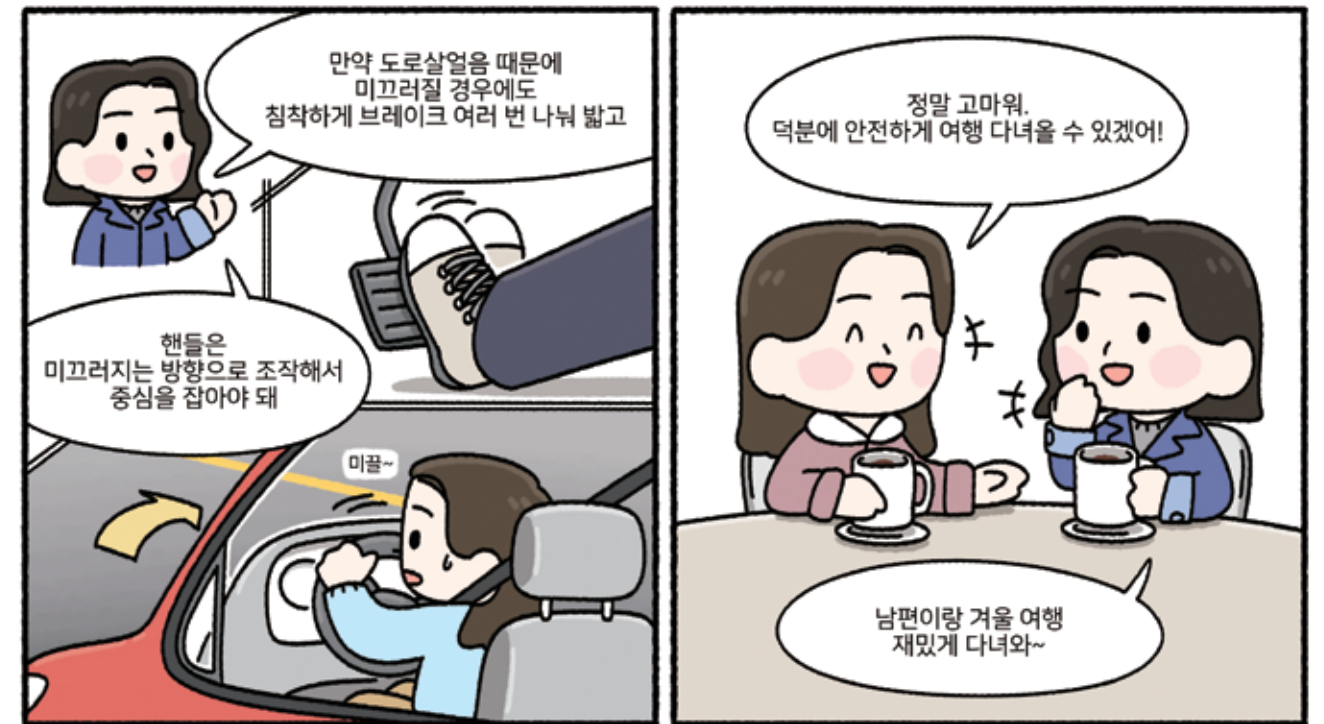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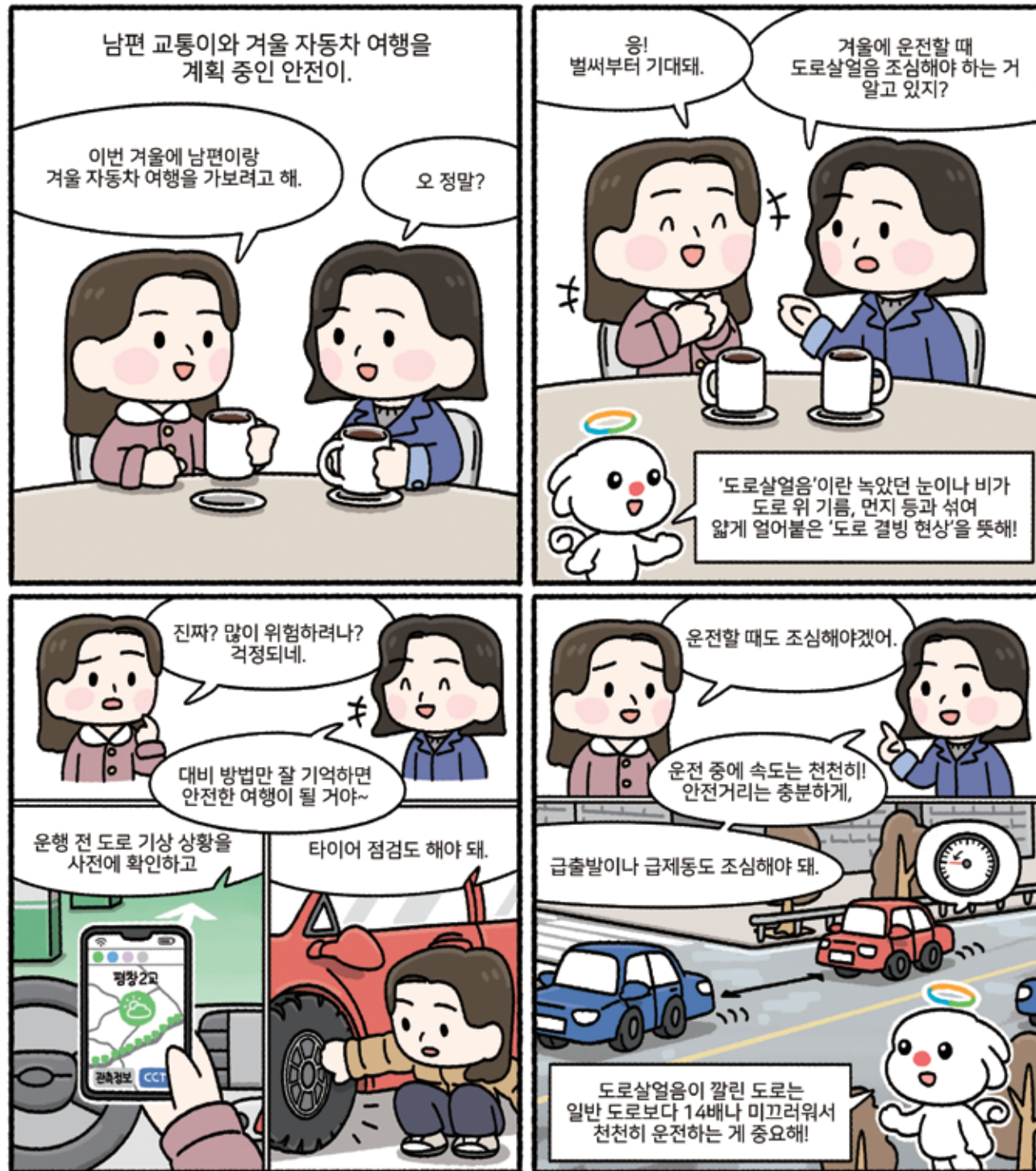
주행 중 환기에 히터 조절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음이 쏟아진다면 무리해서 운전을 강행하기 보다는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멈추고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졸음쉼터에 들러 잠시 눈을 붙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어 있는 근육을 풀고 세포들을 깨워주세요. 차에서 잠을 잘 때는 반드시 시동을 완전히 끄고 창문을 조금 연 상태에서 의자는 최대한 편하게 조정하여 잠깐의 쪽잠이라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겨울철 도로살얼음 어떻게 대비할까?

카툰 에디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라고 불리는 도로살얼음!

아스팔트와 비슷한 검은색으로 보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 특히 위험해

강풍이 부는 교량 위 구간이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터널 입출구,  
음지 구간 커브길, 비탈면 구간 등에  
도로살얼음이 자주 형성되니까  
미리 확인해서 철저히 대비하자!





다음 중 겨울철 도로살얼음 대비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차량 운행 전 날씨 앱 등을 이용해 도로의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해요.
- ②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핸들은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조작해야 해요.
- ③ 겨울철 운전 시에는 평소보다 더 충분히 간격을 두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 ④ 운전하기 전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해요.

기간 2024년 12월 10일(화) ~ 2024년 12월 25일(수)

이벤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5명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 시 별도 문자 송부)

참여방법 ① 웹진에서 참여하기 [tsmagazine.co.kr](http://tsmagazine.co.kr)  
② 아래 QR코드 연결해 참여하기



퀴즈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지난 호 정답 ④



## 내가 사는 지역이 스마트시티가 된다면?

스마트시티 기술이 내가 사는 지역에 실현되면 어떤 점이 편리해질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 관련 스마트시티 기술과 관련해 독자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정리. 편집실



버스, 지하철, 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교통 수단 간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환승 시간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대중교통 환승 허브’** 기술이 우리 지역에 도입됐으면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동 경로와 시간에 맞춰 **맞춤형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편리하겠죠?

- 박경○



주차장이 항상 붐벼서 빈 자리 찾아 계속 빙빙 도느라 번거로운데, 빈 자리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스마트 주차장’**이 도입되면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 최주○



보도블록을 밟으면 소리가 나고 사거리에서는 위치 확인까지 가능한 **‘스마트 보도블록’**이 생긴다면 교통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유○



**‘스마트 가로등’**이요!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와 밝기 조절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로등이 우리 동네에 생긴다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조경○



제가 사는 지역은 교통 체증이 잦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혼재된 곳이 많은 편이에요. AI 센서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감지해 신호를 조절해주는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이 도입 되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순○



버스나 자전거, 전기 스쿠터,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로와 요금을 제공하는 **‘친환경 통합 이동서비스(MaaS)’**가 도입 되면 좋겠어요. 머지 않아 이용 가능한 날이 올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 이향○



교통 약자를 위한 음성 안내와 비상호출벨, 공공 와이파이 등 편리한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도입되면 우리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 같아요.

- 이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을 운전자가 멀리서도 미리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 이은○

11+12월호 독자 설문조사 당첨자  
스타벅스 기프티콘 30명

홍근○7604 김성○8919 염승○3813  
주진○4515 김수○0777 홍재○1587  
이광○4135 정아○4751 고연○8898  
이혜○0140 권정○7163 박경○8873  
최주○0826 김윤○3605 이수○8041  
이종○5044 김유○1225 임미○8323  
최광○5216 박수○3340 조경○6422  
이순○4904 이향○8494 장철○3373  
이춘○5416 이나○9136 최진○3203  
이은○5797 안홍○2631 임명○1403

\*이름 두 글자와 휴대전화 뒤 네 자리로 표시  
상품지급일 : 12월 24일

\*문의사항은 ts\_magazine@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TS 매거진과 함께 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퀴즈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TS 매거진을 사랑해주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호 TS 매거진을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초성퀴즈!

문제를 읽고 네모 칸에 들어있는 초성을 참고하여 정답을 맞춰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TS 매거진을 만들기 위한 독자후기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되는 구글폼에  
퀴즈 정답(2개)과 상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참여기간

2024년 12월 25일까지

## 지급일

2024년 12월 26일

(총 10명 추천, 순차적 배송 시작)

## 당첨자 발표

11+12월호 웹진

## 당첨선물

정답자 추첨을 통해 선물 지급

(퀴즈 : 배달의민족 모바일금액권 1만원)

\*문의사항은 ts\_magazine@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지난호 당첨자

\*당첨자 휴대폰 번호 뒤 네 자리로 표시

정○○ 9191 양○○ 0853

성○○ 3745 백○○ 7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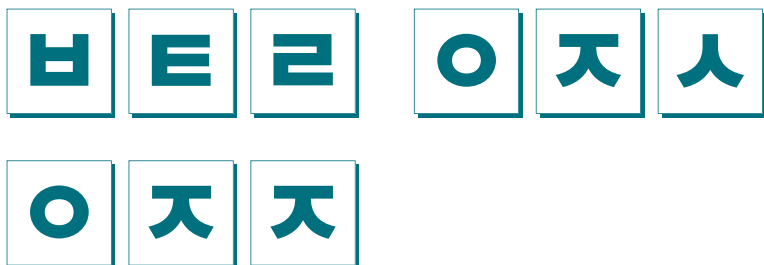
김○○ 9308 박○○ 9929

이○○ 1979 김○○ 0757

공○○ 1128 박○○ 1097

**Q1.** 정부가 차량에 심는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로써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TS 포커스> 코너



**Q2.**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가리키는 말로, 퍼스널 모빌리티로도 불리는 이동수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T식백과> 코너



12/25까지 TS매거진 11+12월호 독자후기를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거진 구독 신청/취소,  
주소 변경 신청  
(문의 02.335.7636)

# 겨울철 도로살얼을 조심하세요!

※도로살얼음?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녹았던 눈이나 비가 도로 위 기름, 먼지 등과 섞여 얇게 얼어붙은 '도로 결빙 현상'  
아스팔트와 비슷한 검은색으로 보여 어두운 밤 특히 위험해요!

## 도로살얼을 이렇게 대비해요!



### 날씨는 미리 확인

운행 전 도로의 기상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요



### 타이어 점검은 꼼꼼하게

운행 전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요



### 조심조심 안전운전

속도는 천천히, 안전거리는 충분하게!  
급출발, 급제동은 안돼요



### 미끄러질 때는 침착하게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서 밟고  
핸들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하여 중심을 잡아요

